



3화 해외에서 더 알아주네? 요런 줄 몰랐지?

호주 출장전에 교수님께 인사왔다.



교수님,
한공학
왔습다~

아니, 저 세련된 처자는???



오늘 반가운 손님들
많네~ 마침 아람이도
왔다네.

선배!



미국 유학 중이지?
아주 온 거니?

아니요~



이번에 Boogle사에
합격했어요. 본격 출근
전에 잠시 귀국한
거예요.

헉!
글지의
Boogle에?



Boogle사는
미국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더라고요.

역시
일류 회사라
요구 수준도
높네~



그 시험 보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인증 이수했다
니까 인정해 주던데요?

수업들을 땀
힘들어서 포기할까도
고민했었는데...



점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나 보네.

그러게요.

나도 너
아니었으면
포기했을걸?



다 끝까지
이끌어주신
교수님 덕분
이에요.

꾸뵤

허허



다들 이렇게 제 몫을
하는 모습을 보니
부듯~하다.



아...아름아,
페이스북 주소 좀
알려줘~

한공학 군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가?

글로벌 엔지니어 우리의 미래

Main News

한국공학교육인증원, IEAM 2013 개최

ABEEK 소식

현대중공업/동국제강그룹/캐리어와 MOU체결

제37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일본 JUAA 공인원 방문

홍익대학교(세종) 방문평가 실시

한국공학교육학회 20주년 기념행사 후원

제7회 E3 (Empowering Engineering Education) Camp 행사 개최

공인원 in 미디어

[동아일보] “한국 공학교육 국제인증 늘려야 공대생 해외일자리 창출”

[한국대학신문] 우수 공학교육 현장을 가다_부산대/영남이공대

[한국경제 잡앤조이] 우수 공학교육 현장을 가다_제주대

건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탐방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김영길입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뉴스레터를 통해 인사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13년 정부로부터 공학분야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은 공인원이 공학교육의 개선과 세계화를 위해 12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정부의 인정기관 지정으로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공인원의 책임이 막중해진만큼 앞으로도 공인원은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공인원의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김영길 원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 IEAM 2013 개최



〈IEAM 2013 총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장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IEAM(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 Meeting) 2013 총회를 개최했다.

IEAM은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공학분야의 국제 다자간 협약체들이 2년마다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로서 엔지니어의 자격요건 및 실무능력의 상호인증과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IEA(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에는 4년제 공학교육의 국제 등가성을 인정하는 공학교육인증기구들의 국제협약인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 등 6개의 국제협약이 소속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15개 교육선진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워싱턴 어코드는 공과대학 교육의 등가성 확보, 확보된 등가성에 기반한 상호 인정을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된 국제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6월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바 있다.

이번 IEAM 2013 총회에는 25개국에서 150여 명이 참여하여 공학교육 졸업생과 기술사의 동등성 및 상호인정 보장방안과 중국의 워싱턴어코드 준회원 가입 등 협약체 확산을 논의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와 함께 전문 인력의 해외 취업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국내 공과대학 졸업생과 외국 공대 졸업생과의 실질적인 등가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IEAM 총회 개최를 계기로 기본능력과 실무능력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국내에서도 보다 널리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행사는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공학기술 인력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등으로 우수 공학기술 인력 배출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내 공학교육 현장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EAM 2013 총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신학용 의원〉



〈바실 웨이클린 IEA 의장〉



〈워싱턴 어코드 회의 모습〉



〈왼쪽부터 공인원 김정수 국제협력위원장, 김성조 수석부원장, 이호성 부원장, 조선형 ETAC위원장, 김대경 국제협력위원〉



〈시드니/더블린 어코드 회의 모습〉

한편 이번 IEAM 2013에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공학기술교육 국제협의체인 시드니 어코드(Sydney Accord)와 더블린 어코드(Dublin Accord)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었다.

이번 두 협의체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공학기술교육이 Global Standards에 부합됨은 물론 졸업생의 수준도 국제적으로 상호 동등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우수한 글로벌 공학 전문 인재 양성과 졸업생의 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많은 활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SAGM 2013(Seoul) 참가자 단체 사진〉



〈SAGM 2013(Seoul) 회의 모습〉

IEAM 2013에 이어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SAGM(Seoul Accord General Meeting) 2013(Seoul)가 개최되었다.

이번 미팅에서는 서울어코드에 소속된 30여명이 참석하여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전공 졸업자들의 학력에 대한 동등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서울어코드는 지난 2008년 12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도하여 설립한 4년제 컴퓨터·정보기술 관련 전공 졸업자들이 참가 회원국 내에서 동등성을 인정받아 자유롭게 취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 보장하는 국가들 간의 국제협약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대만, 일본, 홍콩 등 8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일본 JUAA 공인원 방문

2013년 5월 14일(화)에 일본 JUAA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방문했다. JUAA(Japan University Accreditation Association)은 일본 고등교육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일본 내 고등교육기관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1947년 46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들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문부과학성 장관의 인정을 받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전 세계 고등교육의 화두인 질 보장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해외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JUAA는 현재 '외부 수준 보장의 현황 및 과제'라는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학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나 인증 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원에 방문하여 인증평가 기준 및 절차와 평가위원 교육, 관리에 대해 배우고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양국 간의 현황과 관련해 정보를 교류하였다.

프로젝트 완료 후, 보고서가 발간되면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기관 간 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자료 및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다.



홍익대학교(세종) 방문평가 실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13년 5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2013 방문평가를 진행했다.

이번에 진행된 방문평가는 2013년도에 진행된 기존 방문평가와는 달리 목요일과 금요일에 대학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토요일에 평가단 조율회의를 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기존 방문평가는 일요일에 평가단 조율회의를 실시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대학교를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금번 홍익대학교(세종)의 방문평가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인증평가 절차개선(안)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개선절차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공학교육학회 20주년 기념행사 후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13년 5월 9일(목) 역삼동에 위치한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공학교육학회 20주년 기념행사를 후원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김영길 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공학교육학회의 2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한국공학교육의 미래와 학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문가 패널 포럼에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김성조 수석부원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공학교육의 미래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제7회 E3 (Empowering Engineering Education) Camp 행사 개최



제7회 E3 Camp(Empowering Engineering Education)가 5월 30일(목)~31일(금)에 노보텔 앰버서더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기획한 E3 Camp에서는 일반적 강연으로 구성되는 기존 워크숍과의 차별화를 꾀하여 평가 관련 주제 강연, 그룹별 심층적인 토의와 실습 그리고 실습 결과의 발표 등을 통하여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진행되었다.

제7회 E3 Camp는 30명의 인원 제한을 두고 사전에 참가 신청과 등록을 받았다. 이번 E3 Camp에서 다룬 주제는 동국대학교 프로그램 교육목표 평가모형 및 운영사례,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 모형, Rubrics의 개념과 개발 방법이었다. 조별 토의 및 실습시간에는 참석자 전원이 모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실습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동아일보]

“한국 공학교육 국제인증 늘려야 공대생 해외일자리 창출”

서울서 열린 IEAM 주관
공학교육인증원 김성조 수석부원장



(김성조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은 “교수의 연구업적만 따지는 한국 대학 풍토에서는 이인슈타인도 정년 보장을 못 받았을 것” 이라며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조했다.)

“이공계 기피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갈수록 아이들이 어려운 공부를 피하려고 하죠. 그럴수록 우리 대학들이 공학교육의 질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1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만난 김성조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이곳에서 진행 중인 ‘IEAM 2013’ 행사를 주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IEAM은 공학전문가들의 국제연합체인 IEA(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가 2년마다 여는 정기총회로 ‘공학올림픽’ 이라 불린다. 17일 개막해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25개국 150여 명이 참가해 공학교육의 미래와 국제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IEAM의 주요 목표는 각국 공대가 글로벌한 교육을 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이 보다 쉽게 다른 나라로 이동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교육내용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현재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 등지에서 대규모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현지 규정에 따라 기술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국내 공대의 교육과정을 인정받지 못해 우리 인력을 쓰지 못하는 실정” 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학교육의 인증과 이를 통한 국제교류는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 라고 덧붙였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국내 공대를 선별해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김 부원장은 아직도 상당수 공대가 산업화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예전에는 똑똑한 몇 명이 한 가지를 개발하면 다수의 근로자가 찍어냈다. 아직도 공대 교육은 이런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설계 중심, 토론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공학교육 인증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국내에 공대가 너무 많아 부실교육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체 대졸자 중 공대생 비율이 12% 선인 데 반해 한국은 23%에 이른다.

그는 “일부 공대들이 비싼 등록금을 받아놓고 실험실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않은 채 인문사회 분야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공대 졸업생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제대로 된 공학교육을 하지 못하는 곳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동아일보 기사 인용>

[한국대학신문]

우수 공학교육 현장을 가다_부산대/영남이공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대학의 공학교육 경쟁력은 대외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 2011년 '더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 톱 50 공과대학'에 한국은 포스텍과 KAIST 두 곳만 이름을 올렸다.

기업에서는 "대졸 신입사원을 재교육하는 비용이 1인당 연간 6000만원에 이른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공학교육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교육이 개발되고, 대학별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공학교육인증제가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전국 4년제 공과대학 60곳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10개 전문대학에는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가 운영 중이다.

본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우수 공학교육 현장을 가다'를 공동 기획했다. 이를 통해 우수 사례가 될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취재, 이를 8회에 걸쳐 보도한다.

(한국대학신문 기사 인용)

‘착한 기술’ 전파하는 동남권 공학교육의 심장

공학교육 활성 계도에 계몽성향 ‘형식 혁신’으로 앞장서 ‘착한 기술’ 확산 - 형식의 변화가 양성

동남권 대학 공과대학의 공학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는 ‘착한 기술’을 전파하는 동남권 공학교육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대 공과대학은 ‘착한 기술’을 전파하는 동남권 공학교육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대 공과대학은 ‘착한 기술’을 전파하는 동남권 공학교육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공학기술교육의 허브로 '비상'

SIF 교육사업은 지역...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선정
중여리 활동에 산업계 참여...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에 초점

영남이공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학생이 중심이 되는 만족 캠퍼스! 영남이공대학교가 자랑스럽습니다

“뭉 지멘스와 제휴로 기술교육 선진화”

[한국경제 캠퍼스 잡앤조이]

우수 공학교육 현장을 가다_제주대

캠퍼스 잡앤조이는 지난 3월 숨은 스펙트라는 제목으로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제시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이수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00년부터 전국의 공과대학에서 속속 공학교육 인증에 참여하면서 학내에 이를 전담할 기관을 세우게 됐는데, 이곳이 바로 공학교육혁신센터이다.

캠퍼스 잡앤조이는 전국의 우수한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직접 찾아 공학 인재 양성 현장을 둘러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첫 순서로 제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찾았다.

(한국경제 캠퍼스 잡앤조이 기사 인용)

지역 기업과 함께하는 혁신의 현장
제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역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제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모습이다. 센터는 지역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명	인증률	인증률	인증률
KAIST	37	7	27%
포스텍	19	4	21%
한양대	17	1	6%
연세대	30	1	3%
고려대	35	17	49%
충남대	8	1	13%
한남대	4	1	25%
합계	160	30	54%

지역 산업계의 지원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심영재

BTNCAFE 대표/2012 서울어코드 Item Show 산학프로젝트 공모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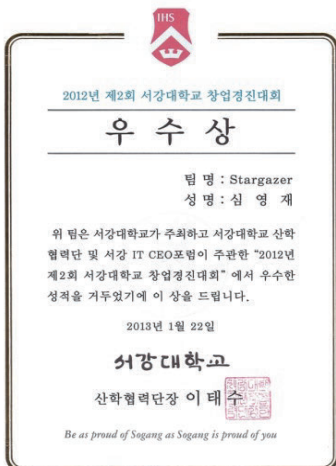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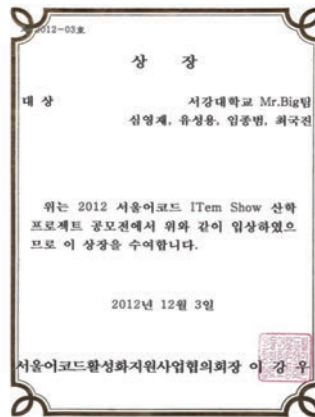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심영재 학생입니다. 저는 국내 IT 전공자로서 한국 출신 개발자가 국제 사회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IT 전공에서의 경쟁력을 얻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독학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학 전공 수업을 받으면서 어수선했던 저의 지식들을 탄탄하게 바로잡았고, 그로 인해 조금 더 전문가로서 발돋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에서도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학도로서 필요한 각종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공모전 등 대회 출전 뿐이었습니다.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에 출전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고 여러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도 설계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 공학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여러 실함과 설계 관련 강의들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학교육 인증 과목인 종합설계프로젝트 수업은 저의 설계 프로젝트 역량을 키워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사람인 '월급 1000만원 프로젝트' 의 최종 1인에 발탁되어 한 달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8학기에 진행했던 서울어코드 주최 Item Show에서는 종합설계프로젝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제작한 얼굴인식 복싱 게임 어플리케이션의 Showcase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20개 대학 총 290개 팀 중에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는 등, 8학기를 마무리하기 전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대학생 CEO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공학교육으로 다져진 튼튼한 지식기반을 토대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해 내는 유능한 기능인이 되고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캠퍼스 집안조이]

‘오버’ 스펙이 취업 실패의 원인?

스펙이 너무 좋으면 취업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담당자 134명 중 과반수인 67.2%가 ‘스펙이 너무 좋아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것. 구직자들은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은 물론 취업 재수까지 선택하지만, 이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너무 좋은 스펙의 구직자를 탈락시킨 이유로는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아서’ 가 전체의 61.1%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단순히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업무, 비전을 세우고 이에 맞는 스펙을 쌓는 것이 정답.

조사기관 : 인크루트

조사대상 : 기업 인사담당자 134명

조사방법 : 이메일 설문조사



[아시아뉴스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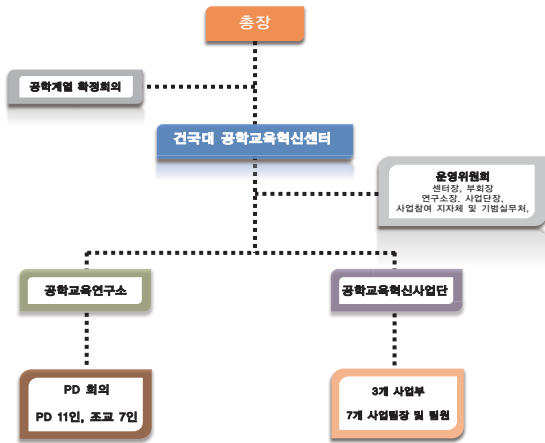
2013년 하반기 취업예정자 면접에서 중요한 면접 메이크업은?

면접시 남성들은 메이크업을 하기 보다는 부드러운 인상과 함께 믿음을 줄수 있는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또 흑 얼굴에 잡티가 많거나 얼굴이 너무 구리빛이라면 남성용 비비크림을 사용하는것도 괜찮다고 지연 페이스라인79 대표는 설명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면접메이크업시 주의사항은 튀지 않는 화장과 과한 코디스타일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깔끔한 인상을 주기위해서는 본인의 피부표현에 맞는 꼼꼼한 베이스를 해야하며 아이새도우 색상은 튀지않는 누드베이지나 누드핑크로 생기를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젤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또렷한 눈매를 주는 것이 좋으며 립색상선택은 발생력이 있는 틴트를 사용하며 페이스라인 부분은 쉐딩을 주며 또렷해보이도록 티존부위에 하이라이트를 줌으로써 깨끗한 인상을 줄수 있는 메이크업을 완성할수 있다.

남성은 깔끔한 정장으로 튀기 보다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 좋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치마를 입었을때는 길이는 무릎까지 오는 것이 좋으며 블라우스도 부드럽거나 깔끔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킬힐 보다 3~6cm정도의 무난한 굽높이의 구두를 선택하고 어두운 의상 선택은 금물이며 화사하고 깔끔한 색상을 선택하는게 좋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인만큼 면접관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모습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할때는 또박 또박 이야기하면서도 친근감을 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회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건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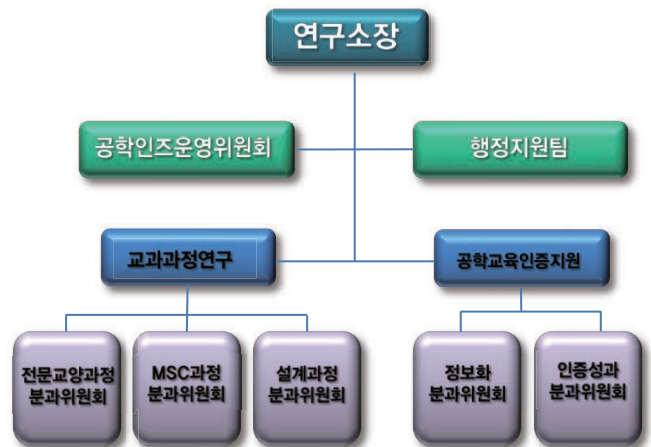


〈공학교육혁신센터 조직도〉

공학교육연구소(<http://abeek.konkuk.ac.kr/>)

공학교육연구소(소장 : 정태건 교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하부 조직으로서 공학교육인증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소는 연구소장, 책임연구원, 직원 및 조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프로그램의 PD (Program Director) 교수가 담당한다. 연구소 내에는 공학교육인증 운영위원회와 전문교양, MSC, 인증성과, 설계, 정보화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공학교육연구소 조직도〉



〈공학교육혁신사업단 사업목표〉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 김낙교 교수)는 총장 직속 기관으로 산하에 공학교육연구소와 공학교육혁신사업단을 두어 2원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공학교육연구소는 건국대학교 공학계열 11개 프로그램(학과/학부/전공)의 공학인증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사업단은 3개 사업부, 7개의 사업팀을 운영하며, 공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하드스킬, 소프트스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사업단(<http://ceei.konkuk.ac.kr/>)

건국대학교 공학교육혁신사업단(단장 : 강철구 교수)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받아, Techno-Culture를 선도하는 창조적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창조적 엔지니어란 자기 전공분야의 전문성, 인접분야와의 융합력, 인문·사회학적인 통찰력,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갖춘 엔지니어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공학교육 방식이 주로 교과서와 강의 위주의 지식전달 방식이었던 것을, 배운 공학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설계와 실천체험(hands-on experience)을 경험할 수 있는 공학교육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 자기정체성, 발표력, 리더십과 인간관계 등의 소프트스킬 교육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

건국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요 연혁

연 월	내 용
2001.03	공학교육인증 준비위원회 구성
2003.03	공학교육인증 준비위원회를 공학교육연구소로 확대 개편 공학인증 대비 각종 위원회 발족 및 규정 제정
2004.03	공학교육 인증대비 프로그램 실시
2004.09	공학교육연구센터(공학교육혁신센터 전신) 설립
2006.05	CAC 현장방문평가 (인터넷·미디어공학, 컴퓨터공학 심화프로그램)
2006.09	KEC 2005 시범인증 현장방문평가 (기계공학, 섬유공학 심화프로그램)
2007.01	공학교육인증 최초 획득 (인터넷·미디어공학, 컴퓨터공학 심화프로그램)
2007.06	1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시작
2012.02	1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종결(우수 평가)
2012.03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시작(10년)
2013.02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1차년도 사업 종결 (매우 우수 평가)
2013.04	NGR 인증 현장방문평가(4개 대학 11개 프로그램)
현 재	4대 대학 11개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획득 상태

캡스톤 디자인 팀 운영



교내 창의설계 경진대회 개최



창의 디자인캠프



테크노 컬처 특강





은밀하게 위대하게

공화국에선 혁명전사, 이 곳에선 간첩

북한의 남파특수공작 5446 부대.

20000:1의 경쟁률을 뚫은 최고 엘리트 요원 원류환, 공화국 최고위층 간부의 아들이자 류환 못지 않은 실력자 리해랑, 공화국 사상 최연소 남파간첩 리해진. 세 사람은 5446부대의 전설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조국통일이라는 원대한 사명을 안고 남파된 그들이 맡은 임무는 어처구니 없게도 달동네 바보, 가수지망생, 고등학생이다. 전달되는 명령도 없이 시간은 흘러만 가고 남한 최하층 달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에 익숙해져 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은밀하고 위대한 임무가 내려진다.

● 2013년6월 5일 개봉

(출처 : 네이버)



추천
뮤지컬

레미제라블

뮤지컬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걸작, 드디어 무대 위의 살아있는 감동이 찾아온다!

기구한 운명의 청년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지내고 가석방되지만 전과자의 세상으로부터의 배척과 멸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단뉴 주교의 고귀한 사랑으로 새사람이 되고, 시장으로까지 출세하게 된 그는 어려운 이들에게 자상하게 온정을 베풀어 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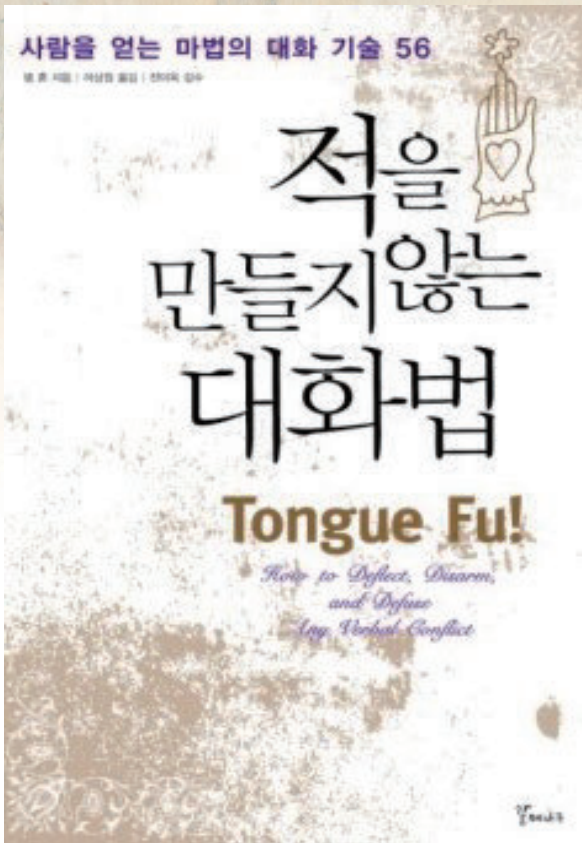
딸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 판틴을 어려움에서 구해 돌보게 되지만, 법과 제도를 맹신하는 자베르 경감에게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다. 불행에 빠진 판틴의 딸 코제트를 구해 수도원으로 잠적하고, 다시 10년의 세월이 흐른다.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한 코제트는 마리우스라는 학생 혁명가를 알게 되고 그와 사랑에 빠진다.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혁명 운동의 현장에서 장발장의 숭고한 인간애와 끝없는 사랑은 죽을 위험에 처한 마리우스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위기에 빠진 자베르 경감마저 변화시킨다.

● 기간 : 2013년 7월 28일까지

● 장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출처: 공연의 모든 것-플레이DB)



이 달의
 도서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말로 상대방 제압하기! 우아하게 갈등을 조정하는 고품격 커뮤니케이션!

이 책은 공격하지 않고 우아하게 이기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전수한다. 속이 상하면 화가 나고 눈물부터 나는가? 속사포처럼 쏟아붓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 반박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얼굴만 붉어지는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바로 화부터 내는가? 저자는 이런 이들을 위해 언어적 공격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알려준다.

본문은 이 기술을 ‘텡후(Tongue Fu)’ 기술이라 명명하였다. 쿡후가 신체적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라면, 텡후는 심리적 공격을 막아내는 정신적 무술이다. 누군가 공격을 해왔다 해도 마음과 입을 잘 다스려 언어적 모욕을 당하지 않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돕는다. 본문은 이 텡후 법칙을 다양한 예시, 유명인들의 조언과 함께 제시한다.

말 자체가 안 통하는 상대, 어떤 일이든 불평부터 하는 상대, 매우 분노한 사람 등을 다루고 그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기다 늘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대화 기법을 설명한다. 특히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일상적인 갈등 상황이나, 상대의 공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사안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왜 책을 읽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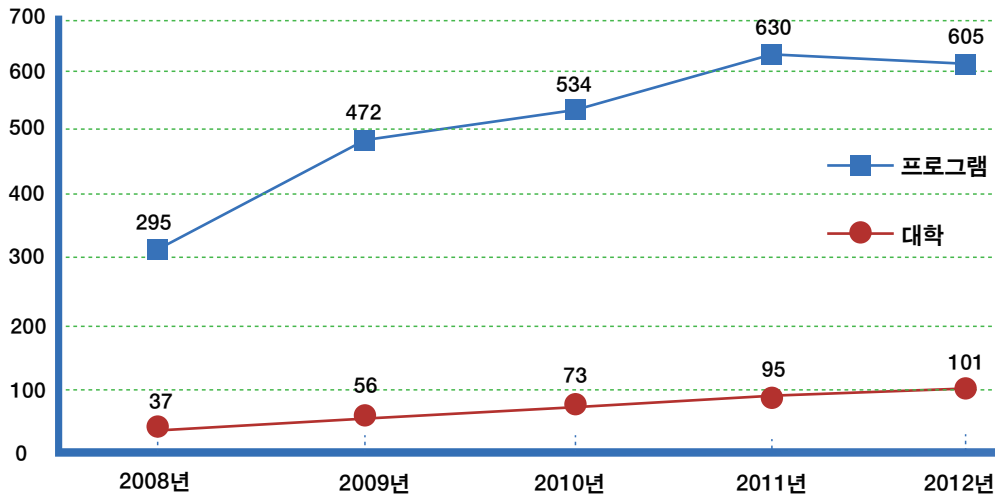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이기적인 독서를 위하여!

『왜 책을 읽는가』는 시, 소설, 에세이 각 분야에서 프랑스 국내 문학상을 모두 수상한 사를 단치의 베스트셀러로, 그의 깊은 사색과 빛나는 지혜를 담아낸 유쾌하고 진지한 독서론이다. 프랑스 문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이 책은 고전에서 뱀파이어 소설, 문학과 외설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 대가들의 대표작, 일반적인 독서 형태까지 거침없이 이어진다. 개성 있는 독서론과 그의 독서 예찬은 독서의 가치와 즐거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때로는 거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안일한 독자들에게 당장 깨어나라고 흔들려낸다. 심지어 ‘오만한 작가들의 사기 행각을 조심하라’고 직언을 아끼지 않는가 하면, 과연 자신과 함께 ‘책의 시대’를 열어가갈 용기가 있는지 조심스레 떠보기까지 한다. ‘왜 책을 읽는가’라는 정답 없는 질문에 이 책은 사려 깊고 원대한 대답이 되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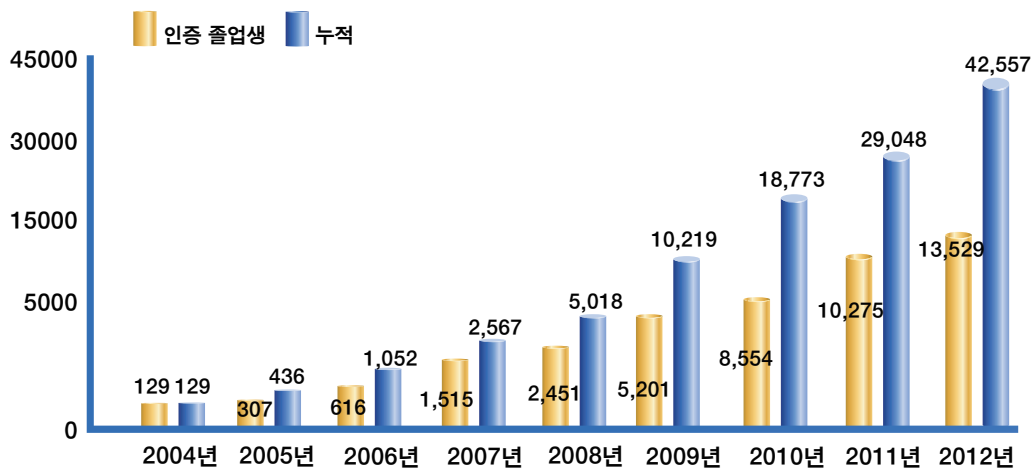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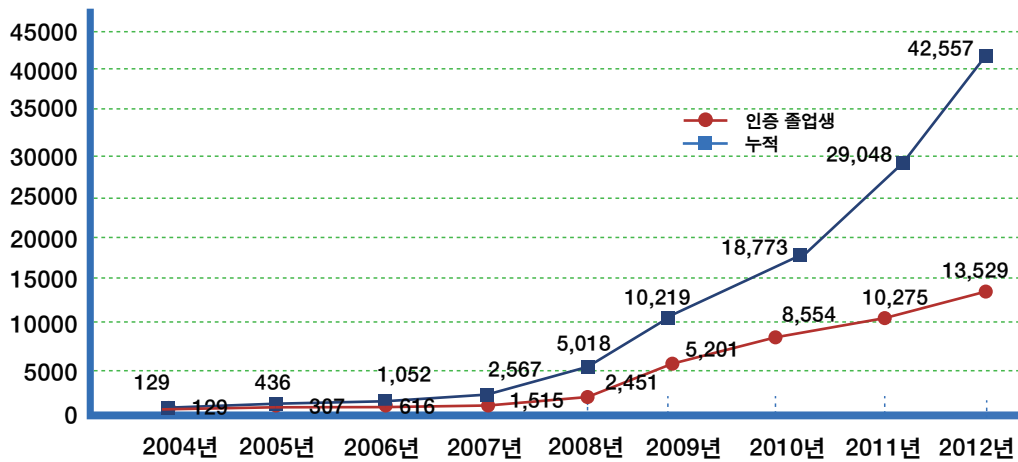
공학교육인증 현황

● 인증 대학 및 프로그램 현황 (2013년 5월 기준)



● 인증 졸업생 현황 (2013년 1월 기준)

연도별 인증 졸업생 수



국내혜택

개시연도	기업명	인증 졸업생 혜택	비 고
2005년	AhnLab	서류전형 우대	<p>* 삼성그룹 계열사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석유화학 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화재 삼성BP화학 삼성LED 삼성SD 삼성SDS 제일모직 SB리모티브</p> <p>* 인성정보 계열사 : 인성디지털 아이넷뱅크 엔와이티지 벤치비 엠케이헬스</p> <p>* STX그룹 : STX STX팬오션 STX조선해양 STX엔진 STX중공업 STX메탈 STX에너지 STX건설 STX마린서비스 STX솔라 STX대련 STX OSV</p> <p>* 동국제강그룹 :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DK유아이엘 DK유엔씨</p>
2006년	삼성전자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2007년	LG-노텔	10% 가산점 부여	
	삼성그룹 16개 계열사*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2008년	NHN	서류전형 우대	
2009년	KT	서류전형 우대	
	SK 커뮤니케이션즈	서류전형 우대	
2010년	벤처기업협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온세텔레콤	서류전형 우대(이력서 표기)	
	서울9호선 운영(지하철 9호선)	서류전형 우대	
	인쿠루트	인증이수여부 이력서 표기	
	비트컴퓨터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서울반도체 / 서울옵토디바이스	서류전형 우대	
	드림위즈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몬티스타텔레콤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인성정보 및 5개 계열사*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신세계건설 / 신세계아이앤씨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SK텔레콤	서류전형 우대	
	가온미디어(주)	서류전형 우대	
	(주)원스테크넷	서류전형 우대	
	서울통신기술	서류전형 5% 가산점 부여	
2011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체 평가위원 추천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전국경제인연합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2011년	STX그룹*	서류전형 우대	
	OCI	인증이수 여부 이력서 표기	
	중소기업중앙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2012년	SK C&C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주성엔지니어링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휴맥스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콤텍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콤텍정보통신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다산네트웍스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핸디소프트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퓨처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옵니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바이오스마트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2013년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문과과정 지원자 중 공학인증수료자 우대	
	나모인터렉티브	서류전형 및 이력서 표기	
	SK하이닉스	서류전형 및 이력서 표기	
	동국제강그룹*	서류전형 및 이력서 표기	
	효성	입사지원서 자격증 표시란 공학교육인증이수여부 체크	
	현대제철	입사지원서 자격증 표시란 공학교육인증이수여부 체크	
	현대중공업그룹	서류전형 가산점부여	
2013년	캐리어	서류전형 우대	
	오텍	서류전형 우대	
	한국터치스크린	서류전형 우대	

▲ 국제혜택

2007년 6월, 국제적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인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 정회원에 가입됨에 따라 ABEEK 인증 졸업생은 정회원국 사이에서 법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회원국의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됨

국가별 로고	국가명	국제적 혜택
	호주 (EA: Engineers Australia)	- 기술사 (Professional Engineer) 수준으로 EA의 정회원, 기술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인기술사 혹은 호주기술사 등록(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 Register)에 필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 - EA의 정회원 및 기술사 등록 관련 혜택과 더불어 기술이민 시, 서류 제출 면제
	캐나다 (EC: Engineers Canada)	- Licensing body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캐나다 인증기구의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권장 - 학력요건 평가 시 시험 면제 ※ 단, 캐나다 자격증 취득 시 아래요건을 충족 1) 캐나다에서의 1년을 포함해 3~4년 정도의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어야 함 2) 기술사 시험(professional practice)에서 법과 윤리 과목을 통과해야 함 3) 영어 능통(퀘벡은 불어, New Brunswick은 불어 혹은 영어)
	아일랜드 (EI: Engineers Ireland)	- WA 회원기구의 인증결정을 존중하고, 아일랜드의 공인기술(Chartered Engineer) 자격을 위한 교육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
	뉴질랜드 (IPENZ: Institu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New Zealand)	- 뉴질랜드 인증기구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 - IPENZ의 기술사가(Professional Membership of IPENZ)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함
	영국 (ECUK: Engineering Council UK)	- 공인기술사 (CEng) 등록 시, 영국의 인증졸업생과 동등하게 인정을 받음
	미국 (ABET: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기술사 등록 혹은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이 없고 각각의 주에서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마련, 따라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할 시, 기술사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 주의 정책을 따라 추가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 주 위원회(State Board)는 ABET의 인증졸업생 혹은 교육요건과 현장경험이 인정할만한 개인은 자격증 발급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일부 주 위원회에서는 교육자격을 제3자에게 평가 받도록 하기도 하나, 미국 내 대부분의 주위원회에서 동등성을 인정함
	홍콩 (HKIE: The HongKong Institution of Engineer)	- HKIE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들이 (Graduate/ Corporate Member of the HKIE) 갖추고 있는 교육요건과 동등한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함
	남아프리카공화국 (ECSA: Engineering Council of South Africa)	- 기술사 후보(Candidate Engineers)가 되기 위한 교육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함 (한국 (ABEEK) 은 2007년부터 인정)
	일본 (JABEE: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 일본에서 석·박사 과정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석·박사 과정을 받기에 충분한 학부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추천서를 JABEE 명의로 발급 -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JABEE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
	싱가포르 (IES: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Singapore)	- 싱가포르 기술사회에서 워싱턴어코드 회원기구의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이 싱가포르 내에서 PE(Professional Engineer)가 되기 위한 학력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
	대만 (IEET: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aiwan)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터키 (IEET: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urkey)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말레이시아 (IEET: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Malaysia)	- 말레이시아 인증기구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
	러시아 (AEER: Association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Russia)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한국 (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